

공익 대변인

Letitia James (D, WF)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티샤 제임스입니다 -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그냥 티쉬라고 부르지요. 저는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민주당원입니다. 공익 변호사로, 부검찰총장으로 또 지금은 시의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제 공직 경력은 뉴욕시의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데 느끼는 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강력한 이익단체들에 맞서 평범한 뉴욕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뉴욕시 모든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주요한 수리를 규정한 안전주거법을 통과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강력한 개발자들과 부유한 기업에 맞서 지역사회들이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낸 수억 달러를 잃게 한 시티타임 부패 스캔들 관련 남용 및 사기행위를 발각했습니다. 공익 대변인은 시장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부와 맞서 노인센터 예산 삭감,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그리고 지역 소방서 폐지 반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입증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익 대변인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임금 노동자였고, 바로 이것이 저를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열정과 시의원 임기를 포함해 제가 공직 경력을 싸으며 추진했던 진보적인 제도를 공익 대변인 사무실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싸울 기회를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 월 10 일 여러분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뉴욕시 공익 대변인 민주당 후보 레티샤 제임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